

#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통해 본 조선시대 서민들의 식생활 일면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얼마 전 일간지를 보니 한 해에 남는 음식을 버리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 15조원이라 한다. 그래서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남은 음식 제로 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국물과 짠 반찬이 많은 한국 음식의 특성상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들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못쓰겠어. 저렇게 멸짱한 쌀밥을 마구 버리니” 하시며 혀를 차는 모습도 자주 본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운동이 성공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이 풍족한 나라가 되었는가? 필자는 보릿고개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어려서 음식을 남기거나 흘리면 야단맞아본 기억이 있는 세대다. 그래서 세태를 한탄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것,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에서 한 사람의 됨됨이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공자(孔子)는 『논어』에서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 베고 누웠어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내게 뜬 구름과 같을 뿐이다(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 如浮雲)”라고 했다. 이는 예부터 많이 인용되어온 구절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면 흡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또 “사람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지만 그 참맛을 알고 먹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도 있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 김치 한 조각의 소중함을 안다면 어찌 그 맛이 달고 고맙지 않으랴?

우리 조상들은 일상의 음식을 고마워하며 달게 먹었다. 특히 옛날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만큼, 일상의 노동을 통해 얻은 음식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조선시대 농민들의 밥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조상들은 콩보리밥 한 그릇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경)의 풍속화이다.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물론 농민이나 서민 외에도 고관대작들의 화려한 생활도 묘사되어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풍속화첩』에 실린 그림은 대부분 서민들의 일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 화첩에서 서민들의 음식 풍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새참」이다.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제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경로당에 70대 후반, 80대 노인들이 계시니 60대나 70대 초반의 노인들은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고 ‘중로당’을 만든 곳도 있다고 한다. 시골에서도 모내기나 추수를 할 때 옛날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세대는 옛날 시골의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한창 바쁜 모내기나 김매기 철에 넓은 들판마다 많은 농부들이 무리 지어 일하고, 점심이나 새참 때 아낙네들이 광주리에 새참을 이고 들길을 오가는 모습 말이다. 또 논두렁 한쪽 풀밭이나 공터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일꾼들이 모두 둘러앉아 콩보리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김홍도는 경기도 안산이나 그 인근의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농부들의 생활상을 늘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의 풍속화에는 사대부 화가들의 작품처럼 제3자가 보는 듯한 거리감이 없다. 바로 그 현장에서 공감하던 친근한 느낌이 그림 속에 그대로 배어 있다.



그림 1. 김홍도 「새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새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점들이 잘 드러나 있다. 여름철에 땀 흘리며 논일을 하느라 남자들은 대부분 옷도리를 벗고 있다. 모두들 큼직한 백자 사발을 하나씩 들고, 어떤 이는 밥을 떠먹고, 어떤 이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다. 또 어떤 이는 이미 빈 그릇을 보며 아쉬운 듯 숟가락을 빨고, 어떤 이는 탁주 한잔을 기분 좋게 들이켠다.

오른쪽 위에 그린 더벅머리 총각은 막걸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고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새참 광주리를 들고 온 아낙네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엄마 곁에 앉아 밥을 먹는다. 왼쪽 아래에는 검은개가 암전하게

앉아 자기에게 차례가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다. 아무런 배경 없이 간단한 선으로 묘사한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시골 풍경을 정말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런 실감 나는 체험은 어릴 때 이런 모습을 접해본 기억이 있는 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즘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여길 것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맨땅에 앉아 옷을 벗고 밥을 먹고 있을까?’ ‘아주머니는 왜 남자들 옆에 앉아 가슴을 드러내고 있을까?’ ‘밥그릇은 있는데 반찬 그릇은 왜 없을까?’ ‘혹시 이들은 거지

가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는 일은 각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은 듯하다. 아니, 가정의 소박한 음식상은 풍속화 소재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음직도 하다.

그런데 조선시대 서민들이 집을 떠나 여행을 갈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시내 거리는 물론 지방 도로변에도 식당이 즐비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대개 조그만 주막에서 끼니를 해결했을 것이다. 김홍도의 「주막」은 그런 모습을 잘 전해준다.



그림 2. 김홍도 「주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락을 놓린다. 짚신을 신고 각반을 차고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막 요기를 하고 주머니를 풀어 국밥 값을 지불하려 하고 있다. 식사를 끝낸 후 담배 한 대 기분 좋게 피워 물고 있는 남자의 불룩한 배가 옷자락 사이로 드러나 있다. 뒤에는 붓집이 한 짐 놓여 있다.

이렇듯 김홍도의 풍속화는 그 어떤 자세한 기록보다도 더 실감 나게 조선시대 서민들의 식생활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싸리나 초가로 엮은 간단한 울타리 속에 역시 나무 기둥에 짚으로 지붕을 이은 소박한 초가집이 바로 주막이다. 진흙을 발라 만든 부뚜막에 국을 끓이는 솥과 소반, 씻어서 얹어둔 사발과 술병이 있을 뿐이다. 현대 식당의 복잡한 조리 기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모가 국자로 사발에 막 국을 뜨려는 듯하다.

부뚜막 바로 옆에는 작은 나무 상을 앞에 놓고 한 나그네가 국밥을 먹고 있다. 상 위에는 국밥 사발 외에는 조그만 반찬 종지와 술잔 하나가 있을 뿐이다. 나그네는 의자도 따로 없어 거적 위에 그대로 앉아 먹고 있다. 갈 길이 바쁘지 모자도 벗지 않고 부지런히 손